

사설

문화재 지도자양성에 거는 기대

최근 들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갖 흥미로운 것들에 길들여진 세대의 관심을 끌만한 방안이 부족하다...

오르나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따라서 이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이 전통 문화재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일수록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 다만 경제적인 것은 근거없는 민족 우월주의나 국수주의적인 전통 강조다.

특히 이 일을 교육 일선에 선 교사들과 불교계의 대표적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 주관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사실상 어린이·청소년들의 생활 문화는 지금 거의 서구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전통 문화와 교과서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치밀한 준비와 원만한 진행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환경보살이 되자

6월 5일은 환경의 날로, 올해 환경의 날의 주제는 '지구에게 복원의 기회를(Give Earth a Chance)'이다.

부고속철도가 통과할 예정인 천성산 금정산 지역의 스님들도 때로 절을 떠나 거리를 수행처로 삼으며 '산을 파괴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4월 22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2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 비용의 절감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건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개발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환경의 날을 맞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연환경 파괴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 동시에 우리 불자들이 실천하는 가르침을 받들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의 날을 맞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연환경 파괴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 동시에 우리 불자들이 실천하는 가르침을 받들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징용 한국인희생자 유골 1,136기

한·일 불교계 한국 추진

한일불교교류대회 대표들 한목소리 촉구

한국과 일본 불교계가 공동으로 2차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던 한인전몰희생자 유골 1,136기의 한국송환 추진에 나섰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한 양국의 불교지도자들이 5월25일 도쿄 우천사에서 일제 강제 징용 한인전몰희생자 위령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린 제23차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의에서 양국 불교대표자들은 한인전몰희생자 유골의 한국송환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의 이사장 홍파스님(만음종 총무원장)과 사무총장 남정스님(종회총무원장),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천태종 주정산 감사원장,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 등 양국 불교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한일 불교지도자들은 "한인징용전몰희생자 유골은 조국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월드컵을 계기로 희생자들의 유골 송환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회 후 한일불교교류회의 회장 미야바야시 쇼정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 희생자들의 염원에

응하는 것이 일본불자들의 의무"라며 한인전몰희생자 유골 송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양국 불교계의 유골반환 공식 촉구에는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개별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것을, 양국 정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도쿄 우천사에서 보관 중인 유골은 2차대전 당시 사망한 연고가 없는 한인전몰희생자들의 것으로, 일본 후생성의 요청에 의해 우천사가 관리해왔으며, 북한출신 희생자 유골 431기도 포함돼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끝난 뒤인 28일 한국 측 대표단 홍파스님, 남정스님, 일본불교교류회의 미야바야시 회장과 후나오카 호쇼 사무총장은 일본 후생성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담당관으로부터 "공정적으로 검토해 연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홍파스님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가능성이 크다"며 "금명간 우리 정부 측 관계자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불교대학원' 창립 20일 발기인대회 열어

전국 불교(교양)대학연합회가 창립된다.

서울 동산불교대학(학장 김재일)과 불교통신대학(학장 한정섭), 대전 보현불교대학(학장 오상현), 등 7개 대학 학장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현클럽 13층에서 '(가칭)한국불교(교양)대학 연합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관 및 회칙 등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간 교수 및 교재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재공동번역 작업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지명·일면스님 감사로 동국학원 이사회 개최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5월 29일 제185차 이사회를 갖고 지명스님(법주사 주지)과 일면스님(봉선사 주지)을 7월 25일로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무관 스님과 학적스님 후임으로 새로 선출했다.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 박도근 씨는 회계 감사에 선임됐다. 권형진 기자

대규모 불교학술대회 개최 7월12~13일

전국 강원련, 불교의 시대적 역할·인도철학 등 주제

조계종 17개 강원 학인 스님들의 연합체인 전국강원연합회가 대규모 불교학술대회를 연다. 전국강원연합회(의장 목산·백양사, 이하 전강련)는 7월12~13일 이틀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강련의 학술대회는 강원 학인 스님들이 강원 불교학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불교학의 방향을 모색하는 학인결집대회 형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학술세미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학술대회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과 강원불교학의 현황'을 주제로 한 공동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인도철학·인도대승 이전의 불교' '종교·기신·유식' '응용불교·선심리·비교불교' '법화전태·능엄·밀교' 등의 세미나가 4개 분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된다. 발표자는 각 분과별로 7인씩이다. 한명우 기자

명으로부터 탈피해서 가능한 자급자족하며 수행 정진해야 한국불교는 되살아난다"고 꼬집었다. 수경스님은 또 "스님들이 돈을 만지는 한 불교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스님들은 수행과 전법에 힘쓰고, 나머지는 다 재가 불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귀족으로 살면서 사회적 역할은 외면하는 스님들,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명우 기자

"한국불교 귀족적이다"

수경스님 주장 "한국 불교는 귀족 불교" 최근 귀화 러시아인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가 참선에만 몰두하고 기복적 신앙에만 매달리는 불자들을 비판한 데 이

어,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이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경스님은 <시사저널> 최근호 인터뷰에서 "스님들 의식도 그렇고, 생활도 귀족적이다. 구조조정해야 할 데가 바로 불교계다. 이 문

명으로부터 탈피해서 가능한 자급자족하며 수행 정진해야 한국불교는 되살아난다"고 꼬집었다. 수경스님은 또 "스님들이 돈을 만지는 한 불교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스님들은 수행과 전법에 힘쓰고, 나머지는 다 재가 불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귀족으로 살면서 사회적 역할은 외면하는 스님들,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명우 기자



받고, 학교관계자들과 종합학교 발전을 위해 현장방문과 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결의했다. 또 종합학교관리위원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미달과 관련해 학교와 종단이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원우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장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시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a.com, www.mahamall.co.kr, www.yosl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노인을 위한 평생 기도처 개원. 위치 및 시설개요: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원: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규모(약 5명)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계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 기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내용: 일 3회 예불, 일 2회 간식제공, 매일물리치료 가능, 주 2회 목욕봉사, 주 1회 한방치료가능, 주 2회 측악의사 진료 가능, 월 셋째주 생일잔치, 월 2회 무료 이미용손질, 월 2회 위문잔치, 봄/가을 2회 나들이 행사. \*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